

## 2023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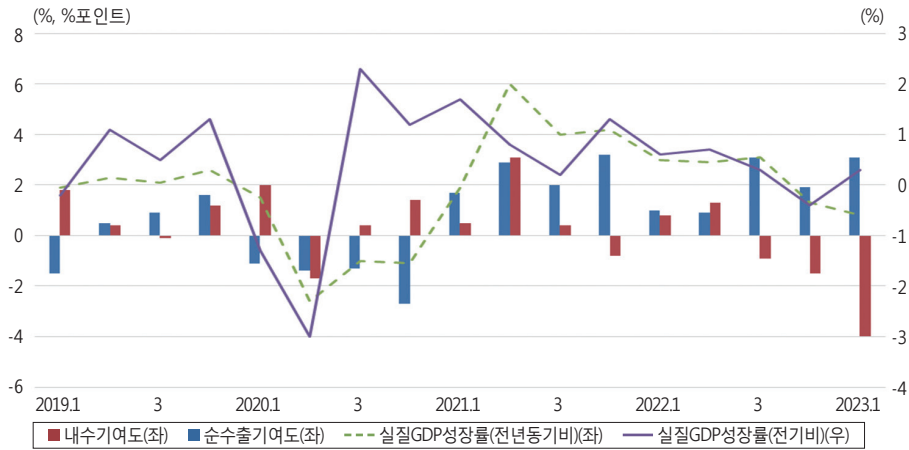
### 요 약

국내 실물경기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2022년 말 이후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2023년 세계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은행위기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잠재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억제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수요 측 상승 요인이 제한적인 가운데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 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금융시장의 리스크 해소 등 달러화 약세 요인과 수출 개선 등 원화 강세 요인으로 상반기보다는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 2023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더불어 교역량이 둔화세를 지속하면서 수출 개선 시점이 지연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1.4%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 여부, 소비 개선세의 지속 여부, 반도체산업의 회복 시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민간소비는 저조한 소비심리, 주요 자산 가격의 하락, 실질소득 하락 등에 더해,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추세가 소비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의 둔화, 반도체의 불황 지속,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약 9.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국내 경기 상황 판단

올해 상반기 국내 실물경기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2022년 말 이후 수출 부진이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음에도 소비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면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내수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의 감소로 인해 전분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미약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수출(통관 기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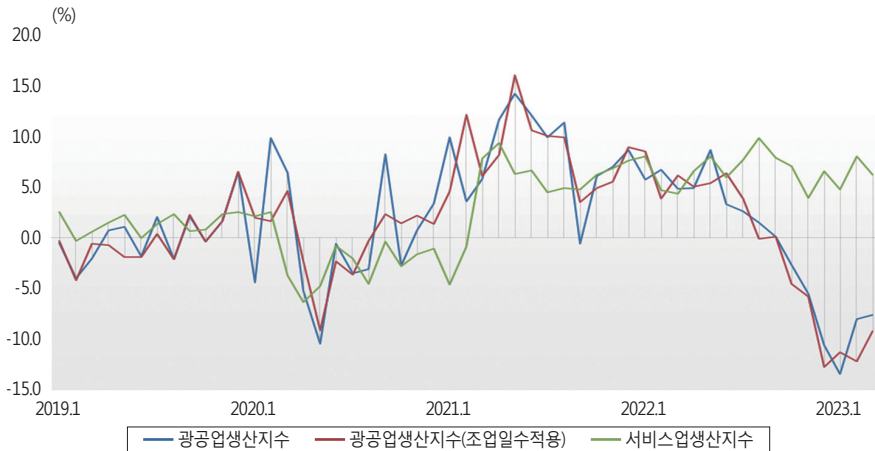
〈그림 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그림 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에도 2022년 초 급속한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2022년부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광공업 생산은 2022년 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2년 3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인 이후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선형지수 순환변동치는 2022년 7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 2. 대외여건 전망

### (1) 세계경제

전 세계 실물경기는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일시적 약세 이후 완만한 흐름을 유지해 오다가 연말에 다시 현저한 약세를 경험한 후 올해에는 미약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선진권의 경우 미국이 2022년 상반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본과 유로존 역시 뚜렷한 성장 모멘텀 없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흥권은 중국이 2022년 말에 코로나 봉쇄조치를 완화하면서 내수가 급속히 회복된 데 힘입어 2023년 초에는 연간

〈표 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21	2022				2023	2023 전망치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IMF (23년 4월)	OECD (23년 3월)	ADB (23년 4월)
전 세계 실질 GDP <sup>1)</sup>	6.3					3.4		2.8	2.6	-
선진권 <sup>2)</sup>	5.7	4.6	3.3	2.6	1.4	2.9	-	1.3	-	0.7
미국 <sup>3)</sup>	5.9	3.7 (-1.6)	1.8 (-0.6)	1.9 (3.2)	0.9 (2.6)	2.1	1.6 (1.1)	1.6	1.5	0.9
유로존	5.3	5.5	4.4	2.4	1.8	3.5	1.3	0.8	0.8	0.5
일본	2.1	0.6	1.4	1.5	0.4	1.0	1.3	1.3	1.4	0.8
신흥권	6.9					4.0		3.9	-	-
중국	4.8	0.4	3.9	2.9	2.2	3.0	4.5	5.2	5.3	5.0
세계교역(재화)	11.1					3.3		1.5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주: 1) 전 세계는 PPP 환율 적용 기준.

2) 선진권의 분기별 수치는 OECD 국가 기준.

3) ( ) 안 수치는 전기비 연율 기준.

4%대의 성장률을 회복한 반면에, 브라질과 인도 등지에서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추세이다.

2023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은행 위기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잠재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억제 영향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조치로 인플레이가 진정되고 있지만, 고용 여건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파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경제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기조 유지에도 수요 약세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 동인이 미흡한 실정이며, 유로존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리 인상 속에서 인플레이 진정 여부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 완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는 2022년 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전격적인 완화 조치로 인해 내수가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수출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외수에 의한 성장 동력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들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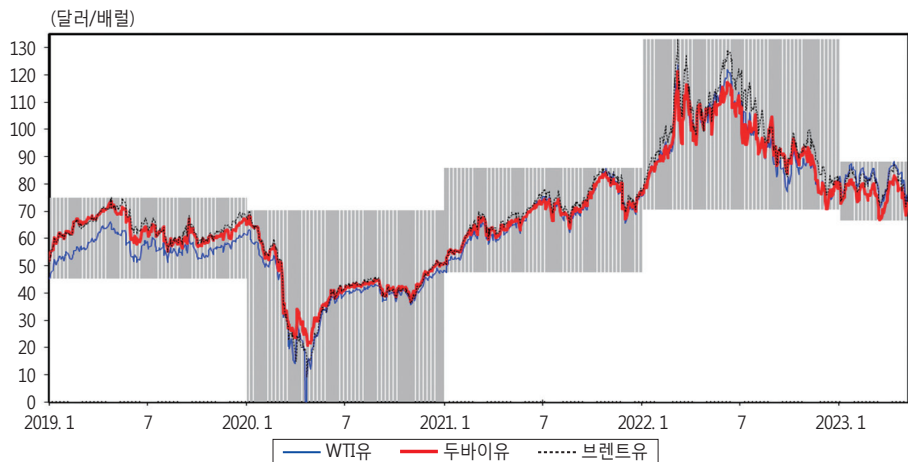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 및 미국·유럽-중국·러시아 등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2) 유가 및 환율

2023년 초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내외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3월부터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 우려와 OPEC+의 예상치 못한 감산 발표로 인해 변동성이 심화되었고, 5월 들어서는 미국의 금융위기 재점화, 미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유가는 7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하였다.

2023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수요 측면에서의 상승 요인이 제한적인 가운데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 상반기 러시아와 OPEC+ 국가들의 감산 결정으로 하반기에 원유 공급량의 감소가 우려되지만, 미국과 브라질 등 non-OPEC+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공급 감소로 인한 원유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의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가 수요의 증가세를 제한할 것이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바이유

〈그림 4〉 국제유가 추이



자료: EIA, Refinitiv, Data Stream.

주: 1)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소값~최대값)임.

2) 2020년 4월 20일 WTI유 가격은 배럴당 -37.6 달러를 기록.

〈그림 5〉 원/달러,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ICE Data Services, 한국은행, Data Stream.

기준으로 2023년 유가는 상반기 평균 80.6달러(전년동기비 20.7% 하락), 하반기에는 76.3달러(전년동기비 14.4% 하락)로 예상되고, 연평균으로는 78.5달러(전년 대비 17.7% 하락)로 전망된다.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 후 상승한 모습이고, 한국경제 성장의 둔화 및 무역수지의 적자 지속으로 인해 높은 수준(원화 약세)이 지속되었다. 연초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점인 1,219.3원(2월 2일, 종가 기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미 연준이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를 표명하고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발표(2월 14일)로 연준의 통화긴축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여 원/달러 환율도 1,300원(2월 24일)을 돌파하였다. 3월 이후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달러화 가치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 확산과 한국의 수출 부진 및 무역 적자 지속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달러의 수급 악화로 인해 원화 가치 약세가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3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금융시장 리스크 해소 등 달러화 약세 요인과 대중국 수출 개선 등 원화 강세 요인으로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달러화 인덱스 간 비동조화 현상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는 동조화 현상이 회복되며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과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선진국들의 금융 리스크가 안정화되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중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미-중 무역 갈등, 국내 경기 둔화 등의 국내외 리스크 요인 등이 심화될 경우, 달러화 강세 및 원화 약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2023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평균 1,295.2원(전년동기비 5.1% 상승), 하반기 1,263.3원(전년동기비 6.4% 하락)으로 예상되고, 연평균으로는 1,279.3원(전년 대비 0.9% 하락) 내외로 전망된다.

### 3. 2023년 국내경제 전망

#### (1) 경제성장

2023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더불어 교역량 둔화세 지속 등 대외 수요에 대한 개선세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수출 개선 시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상 영향의 본격화로 인한 소비 및 투자 둔화 등 내수 위축으로 전년 대비 1.4%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수출은 글로벌 수요의 둔화, 반도체의 불황 지속,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 전환이 예상된다. 내수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 부문에서 설비투자의 소폭

〈표 2〉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1	2022		연간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4.1	3.0	2.2	2.6	1.0	1.7	1.4
민간소비	3.7	4.1	4.5	4.3	3.4	2.1	2.7
설비투자	9.0	-6.4	5.6	-0.4	4.3	-5.9	-0.8
건설투자	-1.6	-4.6	-2.6	-3.6	1.2	0.2	0.7
통관수출	6,444	3,505	3,331	6,836	3,060	3,156	6,216
	(25.7)	(15.6)	(-2.4)	(6.1)	(-12.7)	(-5.2)	(-9.1)
통관수입	6,151	3,614	3,699	7,314	3,353	3,216	6,569
	(31.5)	(26.4)	(12.4)	(18.9)	(-7.2)	(-13.1)	(-10.2)
무역수지	293	-109	-369	-478	-293	-60	-353

자료: 산업연구원.

감소세와 건설투자의 소폭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저조한 소비심리, 주요 자산 가격 하락, 실질소득 감소 등에 더해, 특히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의 가중과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세 등이 소비 수요를 제약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비투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등 대외여건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글로벌 경기 약세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이어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신도시 개발과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되겠지만, 주택시장의 위축과 공공부문의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하반기에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 및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의 적자 지속 여부, 소비 개선세의 지속 여부, 수출 및 반도체산업의 회복 시점 정도 등이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2) 부분별 전망

### 1) 민간소비

2023년 1분기 민간소비는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교역 조건 악화로 실질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코로나 방역 조치의 완화로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민간소비는 2022년 4분기 전년동기비 3.4% 성장한 후, 2023년 1분기에는 4.5%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견고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질총소득(GNI)은 수출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감소세가 불가피해 보이면서 향후 소비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가 0.5%,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2.9% 증가했음에도, 음식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1.7%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비 0.3% 감소하였다. 취업자 수는 2022년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2022년 6월부터 100 이하에 머물러 있어 향후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부채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2022년 4분기부터 소폭 감소한 모습이나, 2023년 들어 5%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표 3〉 민간소비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1년	2022년				2023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민간소비	3.7	4.3 (-0.5)	3.9 (2.9)	5.7 (1.7)	3.4 (-0.6)	4.3 (0.5)
소매판매액지수	5.8	2.6 (-0.7)	-0.2 (-1.0)	-0.9 (0.3)	-2.3 (-0.9)	-0.3 (1.1)
실질 GNI	3.4	-0.4 (1.0)	-1.1 (-1.3)	-1.4 (-0.7)	-1.0 (-0.1)	-1.0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코로나19 확산 직전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2023년 민간소비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 진전에도,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압력으로 인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지난해(4.3%)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의 본격화로 인해 국내외 대면소비가 활발히 유지되고 있는 점은 소비 둔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2) 설비투자

2023년 1분기 설비투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지연되었던 설비투자의 집행 및 기저효과 등에 기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 반등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던 기계류가 올해 1월에 크게 감소하면서 2023년 1분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운송장비는 기계류와 마찬가지로 1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월에 다시 반등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기계류 설비투자는 2023년 2월과 3월에 일반기계류와 정밀기기가 동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운송장비는 3월에 기타 운송장비가 -11.3%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해소와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13.3%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데 힘입어 2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조업 재고율은 반도체 등 ICT 업종의 재고율이 크게 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197.4%,

〈표 4〉 설비투자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2021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설비투자	9.0	-6.2 (-3.9)	-6.6 (0.5)	4.1 (7.9)	7.0 (2.7)	-0.4	7.0 (-4.0)
기계류	12.9	-4.3 (-3.5)	-3.6 (1.4)	4.8 (8.3)	12.3 (5.4)	2.3	
운송장비	-1.6	-12.7 (-5.1)	-15.3 (-2.8)	1.4 (6.5)	-8.1 (-6.8)	-8.7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3년 1분기는 잠정치.

2)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2023년 3월)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향후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재고를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원화 약세도 수입 자본재 가격의 상승과 자본재 수입의 감소를 통해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자본재 수입 점유율: 30.3%, 2023년 2월 기준) 이에 설비투자는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비 4.3% 증가, 하반기에는 5.9% 감소가 예상되면서 연간 전체로는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건설투자

지난해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자금시장 불안에 따른 신규 착공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2023년 1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형태별로 보면 건물 건설은 비주거용 건물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주거용 건물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토목건설은 2021년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공급의 안정화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되지만, 주택경기 둔화 및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확대와 신규 착공 위축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4) 수출입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2023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역시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월별로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표 5〉 건설투자 추이

단위: %

		2021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건설투자		-1.7	-5.5 (-3.9)	-3.7 (0.2)	-2.1 (-0.2)	-3.1 (0.8)	-3.6	1.1 (0.2)
형태별	건물 건설	1.0	-3.6 (-4.3)	-1.3 (1.1)	-0.4 (1.4)	-1.9 (0.0)	-1.8	
	주거용 건물	0.1	-6.7 (-10.6)	-0.3 (6.2)	-2.5 (-0.1)	-6.5 (-1.6)	-4.0	
	비주거용 건물	2.0	-0.2 (2.0)	-2.2 (-3.4)	1.7 (2.8)	2.8 (1.4)	0.5	
	토목 건설	-8.1	-10.7 (-2.8)	-9.3 (-2.1)	-7.8 (-4.3)	-6.0 (3.1)	-8.4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3년 1분기는 잠정치.

2)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이어진 반도체의 불황이 수출 감소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미-중 간 마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같은 국제 정세와 함께 전 세계적인 고(高)물가는 수출 수요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수출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수출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ICT 업종의 침체 영향이 수출 감소를 견인하였다. 자동차 수출은 2021년 24.2%, 2022년 16.4% 증가에 이어 2023년 1분기에도 4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후 수출 확대 추세인 반면에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은 2023년 1분기 현재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는 1분기에만 40%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2022년 4분기 25.8% 감소)

한편, 수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량과 단가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증가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들어 수입 단가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입 감소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수입 단가는 중간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유를 비롯한 1차 산품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역별 수출을 보면 중국, ASEAN 등지에 대한 수출이 뚜렷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중국 수출은 2022년에 이어 2023년 들어서도 1분기 현재 전년동기비 29% 정도 감소하고, 대ASEAN 수출 역시 21% 감소한 모습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표 6〉 산업별 수출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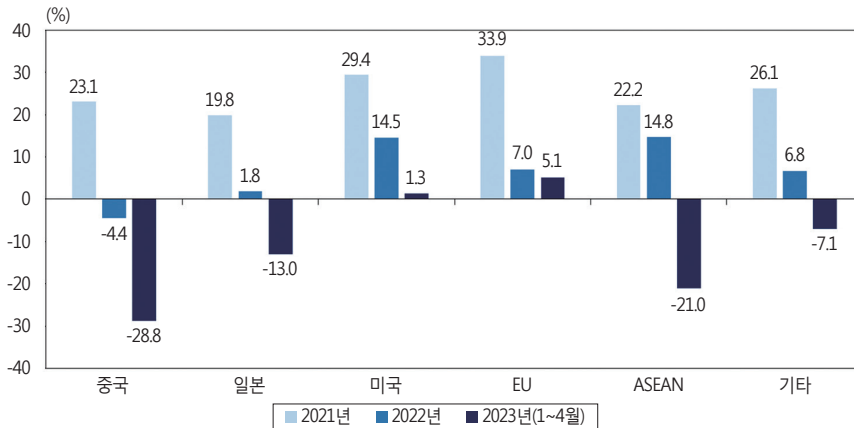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자동차	24.2	16.4	31.2	29.0	28.1	44.0	21.8	47.0	64.1	40.3
자동차 부품	22.2	2.4	7.7	-1.1	-6.3	-3.5	-16.2	13.3	-5.3	-1.6
선박류	16.4	-20.9	5.9	-22.6	76.0	2.6	84.7	-10.5	-24.3	59.2
일반기계	4.6	2.0	0.2	-3.1	-3.9	-2.0	-15.9	12.8	-0.9	7.9
철강	36.9	5.7	-5.2	-17.6	-20.9	-15.8	-25.9	-9.9	-10.7	-10.7
석유화학	54.8	-1.4	-9.8	-25.1	-23.6	-22.6	-24.1	-18.2	-25.1	-23.7
석유제품	57.7	64.9	78.2	18.0	20.8	0.6	14.8	10.9	-16.6	-27.5
섬유	14.0	-4.0	-5.8	-18.7	-17.0	-15.1	-27.7	-4.2	-12.0	-14.9
가전	24.0	-7.4	-15.0	-24.0	-24.8	-8.4	-20.0	4.3	-8.3	-10.2
무선통신기기	45.9	-10.4	-14.9	-19.0	-33.3	-12.7	17.7	-1.8	-42.4	-34.3
컴퓨터	24.7	-4.7	-26.8	-41.0	-34.7	-61.9	-63.8	-64.9	-57.6	-73.3
반도체	29.0	1.0	-3.9	-25.8	-29.1	-40.0	-44.5	-42.5	-34.5	-41.0
디스플레이	18.9	-1.1	-10.0	-20.2	-35.9	-39.5	-36.0	-40.9	-41.6	-29.3

자료: 한국무역협회.

감소는 중국 현지 내수 중심 성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 수출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3년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에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대한 기저효과와 세계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2023년 9.1%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등 ICT 업종의 수출 감소는 주로 가격요인에

〈그림 6〉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감산 등을 통한 가격 조정의 효과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는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대중국 무역 축소가 두드러지며, 향후 중국 경기의 회복에 따라 한국산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와 환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수출 감소요인이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물량 측면에서는 하반기 세계 수요 회복세가 기대되지만,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국제유가와 수입중간재 등 주요 수입재 가격 하락과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2023년 전년 대비 10.2% 감소 예상된다. 따라서 2023년 무역수지는 하반기에 수출 대비 수입이 더욱 감소하면서 상반기 293억 달러 적자, 하반기 6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어 연간 353억 달러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㉑



홍성욱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swhong@kiet.re.kr / 044-287-3192

「2023년 경제산업전망」(공저, 2022)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제조업 주요 업종별 경기 분석」(공저, 2022)



한정민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jmhan@kiet.re.kr / 044-287-3291

「위드 코로나 시대의 수출 유망 품목과 수출 확대 방안 연구」(공저, 2022)  
「최근 우리나라 수출 호조의 배경과 시사점」(공저, 2021)